

#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서 평화·친환경·ODA 실현한다

경기장서 플라스틱·종이 사용 제한  
저개발국가 선수에 참가비 등 지원  
도로, 시설물, 경기 운영과정 점검

세계 양궁인들의 축제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1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최 도시 광주시가 이번대회를 친환경·양궁 저변 확대 국가 양궁기술 지원(ODA) 등을 추진한다.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구호인 ‘평화의 울림(The Echo of Peace)’을 실현하기 위해 평화, 친환경, 저개발 국가 양궁기술 지원(ODA)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30년생 소나무 966그루 식재 효과가 있는 ‘노 플라스틱(NO! Plastic), 예스(Yes!) 966’을 목표로 친환경 대회로 펼쳐진다.

경기장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와 종이 인쇄물 사용이 제한되며 개인 텀블러를 지참한 참가선수들에게 경기장과 연습장 내에 비치된 정수기



2025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홍보 포스터.

/광주세계양궁대회 조직위원회

의 생수를 제공한다.

대회 기간 종이홍보물은 정보무늬(QR) 코드를 연계한 온라인 홍보물로 대체한다.

또 광주시는 저개발 국가 양궁선수에 대한 지원을 통해 나눔과 돌봄의 광주정신을 전파한다. 저개발국가 양궁선수를 대상으로 민관 협업을 통해 대회 참가비, 교통비, 숙박비, 기술인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대회 성공을 위해 대회 경기장과 숙박시설 간 도로 포장과 차선, 시설물을 정비하고 주요 도로와 이정표를 점검해 광주를 찾는 참가선수단과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예·본선 경기가 열리는 광주국제양궁장은 38억원을 투입해 오는 6월까지 세계양궁연맹(WA) 규정에 맞는 양궁장 경기시설을 확보하고 장비보

관실 등 다목적 공간도 구축한다.

또 휠체어를 사용하는 관객을 위한 전용구역 설치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앞서 오는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광주국제양궁장과 5·18민주광장에서 프레대회인 ‘대통령기 전국 남·여양궁대회’를 개최해 경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점검한다.

광주시는 세계양궁대회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도 선보인다.

지난 1일 기준 현재 예비 엔트리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28개국 347명의 선수 및 임원(팀매니저·코치·의료인력 등)이 등록했으며,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에는 13개국 156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 등록했다.

결승전이 열리는 5·18민주광장은 체험부스를 마련해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함께하는 양궁 체험 및 사인회 등이 열린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기장군

####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 제공

기장군은 ‘2025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임산부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해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내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내 임산부 455명을 선정해, 자부담 9만 6000원을 포함 1인당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선정된 임산부는 공급 업체의 인터넷몰에서 다양한 제품을 선택하고, 주문 금액의 20%를 자부담으로 결제하면 집으로 직접 배송받을 수 있다.

/기장(부산)=이도식 기자

### 청도군

#### 레일바이크 중심 관광객 유치

청도군이 대표 관광지인 청도레일바이크를 중심으로 봄맞이 관광객 맞이에 본격 나섰다. 청도읍 신도리 일원에 위치한 청도레일바이크는 왕복 5km 구간의 레일바이크를 비롯해 은하수다리, 테마 산책로, 시조공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청도 9경 중 제9경으로 손꼽힌다.

레일바이크 주변에는 자전거공원과 캠핑장이 함께 조성돼 자연 생태와 레저가 결합된 체험형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에는 약 11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지역 명소로서의 인기를 입증했다.

/청도(경북)=김준환 기자

### 영양군

#### 외국인 계절근로자 423명 입국

영양군에서는 4일부터 9일까지 3차례에 걸쳐 34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한다고 밝혔다.

지난 3.25일 결혼이민자가족 초청 방식으로 78명의 근로자 입국에 이어, 이번에는 M·OU 체결 방식으로 345명의 근로자가 입국한다. 이들은 E-8비자 자격으로 입국하였으며 11월초까지 계약이 체결된 농가에 머물면서 농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입국한 근로자들은 고추, 상추, 과수 등 다양한 농가에 고용되어 농작업을 수행하여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에 도움을 주고, 한편으로 영양군의 우수한 농업기술을 배우게 된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무안군의회

#### 정보취약계층에 수어통역 지원

무안군의회(이호성 의장)는 7일 의정실에서 무안군수어통역센터(센터장 정영식)와 수어통역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본회의 진행 시 수어통역을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도 군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소외 없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다.

협약에 따라 무안군수어통역센터는 본회의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회의 내용을 통역하고, 군의회는 안정적인 수어통역 환경 조성과 홍보 등에 협력하게 된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 부산시, 기업 해외진출·무역인재 양성

###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와 무역실무·마케팅 연수 운영

부산시와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는 지역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무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무역실무·수출마케팅 종합 연수 과정’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에 각각 추진해 오던 무역실무 교육과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통합하고 소상공인 대상의 수출 교육을 신규로 편성해 폭넓은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이번 연수 과정은 ▲무역실무 전문가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소상공인 수출 교육, 총 세 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무역실무 전문가’ 과정에서는 무역 이론부터 무역 영어, 모의 무역 거래 등 실전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단계까지 교육받을 수 있다. ‘글로벌 온

라인 마케팅 전문가’ 과정은 글로벌 유망 전자상거래 마케팅 전반에 대해 진행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올해 신설한 ‘소상공인 수출 교육’ 과정은 부산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라이프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한 예비창업자 50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오픈 마켓을 통해 해외 판매와 진출을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비법을 전수한다.

또 전문가와의 1:1 상담을 통해 소자본이라도 창의적 아이디어와 역량을 갖췄다면 수출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도움 계획이다.

한편, 시가 운영하는 부산수출원스톱센터는 지역수출지원의 핵심 거점으로 ▲수출 지원 시책 종합 안내 ▲수요 맞춤형 교육 ▲수출 애로 상담 ▲대학생 통상지원단 운영 등 수출에 대한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경주시, 오는 14일부터 집중안전점검 추진

### ‘집중안전점검 추진단’ 구성

경주시는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2025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를 전담할 ‘집중안전점검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

‘집중안전점검 추진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총괄관리팀과 현장점검팀 등 2개 팀으로 편성되며, 관내 재난 및 사고 우려 시설에 대한 전방위 점검과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목표로 한다.

경주시는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점검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일 추진단 회의를 열고 각 팀별 임무와 역할, 중점 점검사항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부서별 현장점검반을 구



경주시는 지난 3일 시청 청사 내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25년 경주시 집중안전점검 추진단 회의’를 열고, 분야별 임무와 역할을 공유하며 본격적인 점검 준비에 나섰다.

성하고, 24시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협업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건축물, 교통시설, 복지시설, 공사장 등 9개 분야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현장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 조치를 원칙으로 한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 칠곡군, ‘가실성당 웨딩 챌린지’ 열어

### 넷플릭스 ‘꼭꼭 속았수다’ 촬영지

칠곡군이 넷플릭스 드라마 ‘꼭꼭 속았수다’의 웨딩 장면 촬영지로 주목받은 가실성당을 배경으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가실성당 웨딩 챌린지’를 연다.

이번 챌린지는 드라마 중반부의 한 장면에서 착안했다. 주인공 아이유가 아버지와 함께 붉은 벽돌 성당 앞을 걷고, 푸른 하늘 아래로 풍선과 색종이가 날리는 장면은 칠곡군 왜관읍 가실성당에서 촬영되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방송 이후 ‘아이유가 결혼한 성당’

에 대한 관심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됐고, 실제 현장을 찾는 방문객과 웨딩 촬영 문의도 급증했다.

칠곡군은 이 같은 관심을 지역 관광 활성화로 이어가기 위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챌린지를 기획했다. 참여 방법은 가실성당을 배경으로 드라마 속 아이유처럼 환하게 웃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뒤, ‘#최고의웨딩촬영장소\_가실성당’, ‘#꼭꼭속았수다\_가실성당’, ‘#칠곡군’, ‘#가실성당’ 등의 해시태그를 포함해 SNS에 게시하고, 제공된 네이버 폼을 통해 참여 인증을 완료하면 된다.

/칠곡(경북)=김준환 기자 kih9@

## 전남도,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 고흥군, 신안군 나란히 선정

전남 고흥과 신안에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가 조성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사업 공모에서 고흥군과 신안군이 나란히 선정돼 사업비 350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어촌에 양식장과 기반시설을 조성해 청년 귀어인이 충분한 교육과 실습 과정을 거친 후 창업을 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고흥만 간척지와 신안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등 스마트 양식의 최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고, 시장성이 좋아 귀어인이 가장 선호하는 새우

를 주력 양식품목으로 정하는 등 공모 취지와 평가 기준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결과, 신청한 2곳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고흥군은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수축산 벨리와 연계해 200억원 규모의 첨단 친환경 양식단지를 조성하고, 신안군은 15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등 기존 양식 기반 시설과 연계한 데이터 기반 임대형 양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임대형 양식단지를 2027년까지 신속히 건립해 청년에게 보급하고, 청년·귀어인을 위한 임대형 해상 양식장을 계속 확보하며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벤처수산업도 함께 육성할 방침이다.

/고흥·신안(전남)=양수영 기자